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캐릭터분장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김 은 정 · 광 태 기*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박사과정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서커스에서 탈바꿈한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에 나타난 캐릭터 분장의 미적 특성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 태양의 서커스는 최첨단 기술과 함께 드라마 형식을 도입하여 예술적 가치혁신과 인간의 감성과 이성적 감각의 자유로운 표현을 무언극을 통한 스토리 텔링 공연이다. 마임형식으로 전개되는 공연에는 연극, 무용, 의상디자인, 조명, 음악, 분장 등과 같은 타예술장르와의 융합을 통한 곡예의 예술성과 서커스의 표현 영역을 확장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 양식을 창조해내었다. 이러한 공연예술의 캐릭터는 공연분장을 통해 인물의 개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며 캐릭터의 감성과 물입을 관객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는 공연분장을 통해 드라마적 극적 상황과 인물의 묘사를 의상과 함께 극중 인물 이해를 돕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공연의 예술 미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분장은 현실에서 벗어난 놀라움,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유희적이고 연극적인 인물분장이 이외적인 미감을 주며, 무한한 상상력의 표출로 전위적인 이미지로 시각적 충격을 주며, 그리고 타문화적 코드를 절충시킨 새로운 신비감으로 시각적 예술을 창출해내어 관객에게 심미적인 경험으로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범위는 세계적 수상작을 중심으로 순회공연 4작품, 『드랄리온(Dralion: 국제서커스 페스티벌 은메달, 2003)』, 『바레카이(Vraekai: 펠리상, 2005)』, 『알레그리아(Alegria: 세계금메달, 2003)』, 『퀘담(Quidam: 세계은메달, 2000)』, 4작품과 상설공연 『미스테르(Mystère: 디지털 할리웃상, 1995)』, 『오(O: 금메달, 2004)』 2작품, 아레나 공연 『살탐방코(Saltimbanco: 종합예술상, 2005)』 1작품 총 7작품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주제어: 미적 특성, 서커스 아트, 태양의 서커스, 캐릭터 분장

I. 서론

오늘날 멀티미디어(multi-media)공연과 장르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복합장르의 공연 경향 속에서 인간 신체 움직임이 지니는 강력한 집중력 때문에 무용은 인접 장르로부터 점차 그 가치를 인정받아가고 있으며, 현재히 발전한 극장 기술 테크놀로지(technology)를 과시하는 공연 예술 속에서 조차 신체 움직임은 간과 할 수없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곡예와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오락수단으로 대중적인 공연이 바로 서커스였다.

태양의 서커스는 10년간 연평균 22%의 매출상승이 넘는 문화 대기업으로 사양(斜陽)산업이었던 서커스를 20세기로 접어 새로운 시각매체들의 등장으로 상설무대뿐 아니라 영화, DVD,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등 블루오션사업으로 성장시켰다. 태양의 서커스는 현재 전 세계 4천여명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기업으로 2백여개의 도시에서 8천만명이상의 관객들로 연간 티켓 매출액 1조원에 이르는 예술문화기업이다. 기존서커스에서 벗어나 가치혁신을 일으킨 태양의 서커스는 드라마적 극적 상황과 인물묘사를 위해 캐릭터마다의 의상과 더불어 분장이 시각적인 공연예술을 이해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관객에게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표현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미학은 매체에 담긴 인간의 창조물을 자신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자유롭고 직감적으로 이해하여 현상을 분석하는데 그 본질이 있다. 또한 예술을 특징짓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상을 담은 메시지 내용의 속성뿐 아니라 그와 같은 창작 행위를 위한 ‘표현 방식’과 이를 수용하는 주체의 ‘지각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간의 몸이나 얼굴)’ 자체의 속성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학적으로 주장을 근거로 태양의 서커스 공연에 나타난 분장 유형의 특성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커스아트와 결합된 다양한 메이크업 테크놀로지에 관하여 미학적 시각으로 접근하여 그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서커스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Ame Wilson(2002)²⁾의 연구에서는 공연문화로서의 서커스가 대중과 소통해온 방법론에 관한 분석을 하였다. 국내의 선행연구(심영임, 2010³⁾; 유선미, 2005⁴⁾; 전성찬, 2010⁵⁾; 최민지, 2007⁶⁾)가 있다. 태양의 서커스에 대한 음악적, 경제적, 무용적, 예술사적 접근의 선행 논문은 연구되었으나, 태양의 서커스에 도출된 분장에 관한 논문은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서커스분장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예술로 완성한 태양의 서커스를 통해 디자인 요소들 중 분장의 표현을 알아보고 총 7작품의 인물묘사가 뚜렷한 캐릭터를 중심으로 특성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태양의 서커스의 역사가 기록된 ‘태양의 서커스: 태양아래 20년(Cirque Du Soleil: 20years Under Sun)’에서 캐릭터 관련사진 116장, 60개의 캐릭터 분장을 근거하여 태양이 서커스 홈페이지와 DVD, 태양의 서커스 관련 선행논문 및 각 공연별 캐릭터 사진을 분장 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범위는 세계적 수상을 한 작품을 중심으로 순회공연 『드랄리온(국제서커스 페스티벌 은메달, 2003)』, 『알레그리아(세계금메달, 2003)』, 『바레카이(텔리상, 2005)』, 『퀘담(세계은메달, 2000)』, 4작품과 상설공연 『미스테르(디지털 할리웃상, 1995)』, 『오(금메달, 2004)』 2작품, 아레나 공연 『살탐방코(종합예술상, 2005)』 1작품, 총 7작품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서커스의 개념과 캐릭터

서커스의 어원은 고대 로마시대 전차의 바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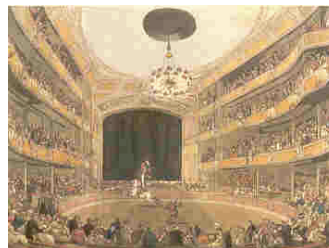
혹은 원형극장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키르쿠스(circus)’에서 파생되었다. 서커스(circus)는 코메디아 델라르테(Commedia dell’arte)의 전통을 이어받았으나 내용보다는 형식면을 부각시킨 버라이어티 쇼(variety show)을 일컫는 말이다. 1782년 찰스 휴스(Charles Hughes)가 만든 ‘로열 서커스(royal circus)’에서 서커스라는 이름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서커스는 <그림 1>을 보면 1768년 영국 곡마사 필립 애슬리(Philip Astley)가 ‘빠른 속도로 원형 공연장을 돌고 있는 말 위에 서는 것’을 시작으로 마상(馬上)극예와 크라운 공연, 공중제비, 줄타기와 저글링, 접시곡예 등 서커스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갖추는데 기여하였다.⁷⁾ 서커스에서의 캐릭터는 크라운(clown)의 코미디, 곡예사 및 그 외 동물의 조련사, 쇼걸(show-girl)의 춤으로 이루어져있다. <그림 2>는 1808년 런던에서의 애슬리의 서커스 공연장내부의 사진이다. 오페라하우스의 분위기로 관객에게 둘러져있는 원형 무대를 배경으로 말타기묘기를 하는 장면이다. 조련사와 채찍질하는 캐릭터가 코믹한 인물로 연출되어 키작거나 뚱뚱하고 눈에 띄는 우스꽝스러운 의상을 입고 있다. 최초의 서커스 크라운은 1805년 조지프 그리말디(Joseph Grimaldi)로 알려져 있고 <그림 3>은 ‘조이(joeey)’라는 캐릭터 네임으로 재주넘기, 엉덩방아, 떠들썩하게 치고 막는 연기로 인기를 얻었다. <그림 4>는 삐에로나 크라운 같은 주목을 받고 관객을 주도하는 인물에는 얼굴에 가

면적인 요소로 화이트 페이스(white face) 분장을 하였다. 서커스의 인물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축제적인 카니발리즘(carnivalism)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고전학자인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은 “크라운 문화는 예술과 삶의 중간지대라는 점에서 카니발과의 교차점을 발견하고 크라운을 카니발적 인물로 지적하였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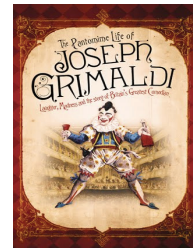
크라운의 종류에는 무슈로알(monsieur), 아를르캥(harlequin), 어거스트(auguste), 악상트리외(excentrique), 제스터(jester), 조이, 트럼프(tramp), 피에로(pierrot), 화이트 페이스(white face) 크라운 등이 있다. <그림 5>에서 어거스트의 패션은 광대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이질감보다는 이목을 끄는 목적으로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사복차림으로 연출한다. 그에 비해 화이트 페이스 크라운의 흰색 분장은 ‘피에로 분장’으로 불운을 피하기 위해 축제 제식을 주관하던 사제로서의 역할로 인간과 신의 중간 존재로 사람들에게 그 입지를 굳히면서 단발적인 웃음을 유발하는 해방된 예술인 동시에 모든 억압적인 기존 질서를 전복시키고 사회적인 질서의 재편을 시도하는 역할로 변환하였다. 16세기 아를르캥의 패치의상에서도 화이트페이스 분장이 나타났고 17세기 프랑스 소극 배우 터루핀 몰로드(Turlupin Lollard)의 영향으로 흰색 밀가루를 얼굴에 칠하게 된 피에로에 큰 러플 칼라와 혈령한 의상과 큰 구두가 픽켈 헤링(Pikkel Herring)을 통해서 빨간 코, 눈과 입 주위에 분장한 1860년대 어거



<그림 1> 애슬리의 서커스, 1798년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lown>)



<그림 2> 애슬리 공연내부장, 1808년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Clown>)



<그림 3> 조이, 1805년
(출처: www.michaeljdixon.com)

스트를 시작으로 크라운 분장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 6>에서는 세잔느의 ‘피에로와 할레퀸’을 주제로한 그림 작품으로 전형적인 피에로는 반가면을 쓰거나 눈주변에 도안을 그려서 유희적인 표현을 하는 캐릭터이다. 그 외 크라운인물외에도 조련사, 곡예사 등은 그 시대별에 유행했던 헤어스타일이나 화장하였다.

2. 태양의 서커스의 역사적 배경

태양의 서커스 창립자 기 칼리 베르테(Guy Laliberté)는 1980년 여름 『레제사시에르 드 베 생폴(les Echaassiers de Baie-Saint Paul)』 공연을 하고 1982년 길거리 축제인 『라 페트 포랑(La Fête Foraine)』에서 서커스 공연을 하였다. 첫째는 재정적 적자를 보았지만, 다음해인 1983년에는 높은 수익을 통하여 상당한 관심과 매스컴의 주목을 끌었다<그림 7>¹⁰⁾. 그리하여 1984년 『라페트 포랑』으로 예술성과 경제성을 인정받은 그들은 ‘캐나다 발견 450주년 기념 조위원회’로부터 ‘국제 청년의해(The International Year of Bouchard)’와 퀘백 서커스 발전 기금 3만 달러를 받게 되었다. 이를 일환으로 태양의 서커스를 창립하게 되었다. 태양의 서커스는 처음에는 1984년 캐나다 퀘백에서 길거리 곡예사 20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몬트리올 본사에서 40개 이상의 국적과 25개의 다른 언어를 가진 4천명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서커스이다. 1976년 체조올림픽의 체조선수들의 태양의 서커스 영입으로 기

존의 동물이나 우스꽝스러운 인물묘사보다는 인체의 아름다운 아크로바틱(acrobatic)을 활용한 무용적 아트 서커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태양의 서커스는 모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감성표출을 극대화하여 표현한 곡예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아티스트들은 개성과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는데 분장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하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는 아크로바틱한 곡예를 시각적인 미로 창출해낸 아트 서커스(art cirque)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또한 ACE(1989), 밤비(Bambi, 1997), 드라마데스크(Drama Desk, 1991, 1998), 에이미(E Emmy, 1989, 2001, 2002), 제몽(Gemeaux, 2009), 로즈도로 드 몽트뢰(Rose d'Or de Montreux, 1989) 등 저명한 상을 다수 수상하여 예술적인 부문에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9년 SBS수목드라마 『태양을 삼켜라』에서 여주인공 성유리의 직장배경으로 태양의 서커스가 등용되어서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는 기존의 서커스 업계를 이끌어가던 링링 브라더스 앤 바넘 앤 베일리 서커스(Ringling Brothers and Barnum and Bailey Circus)가 100여년에 걸쳐 이룬 성과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공결과를 일구어낸 공연무용예술이다. 태양의 서커스는 스타 곡예사나 동물묘기쇼, 유치한 의상, 복합무대쇼를 제거하고 중앙 집중형 무대와 의상의 디자인을 직접 제작하였다. 또한 스타영입에 드는 비용나 유치한 광대들의 공연을 줄



<그림 4> 화이트 크라운, 1930년
(출처: en.wikipedia.org/wiki/Clown)



<그림 5> 어거스트와 화이트페이스크라운, 1860년 (출처: www.clownbluey.co.uk)



<그림 6> 『마르디 그라』, 1888년
(출처: 안녕하세요 세잔씨, 2008, p.347)



<그림 7> 『라 페트 포랑』, 1983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17)



<그림 8> 『미스테어』, 2003년
(출처: www.cirquedusoleil.com)

이고 드라마적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무(無)언어적 다양한 공연 작품을 창조해내었고 예술적 표현의 확장과 함께 첨단 미디어의 활용으로 전용 공연극장이 생겨났다. 태양의 서커스는 첨단기술을 공연속으로 끌어들여 관객들에게 보다 현실감 있고 생생한 장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전적 서커스에서 벗어나 시각적으로 혁신적으로 창조와 예술성을 부여했다.¹¹⁾ 태양의 서커스는 ‘드라마적 요소’를 통한 가치혁신을 위하여 1985년 연극을 전공한 프랑코 드라고네(Franco Draone)를 영입하여 곡예사들에게 캐릭터적인 특징을 주입함으로써 스토리 텔링(story telling)이 가능하게 되었다. 감독 프랑코와 의상 디자이너 도미니크 르미외(Dominique Lemieux), 미셸 크레드(Michel Crete)와 함께 메이크업 디자이너 나탈리 가그네(Nathalie Gagné)가 함께 조력하여 캐릭터의 개성에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제작함으로써 캐릭터마다 시각적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이러한 스토리 텔링을 전달하기에 캐릭터의 표출요소에서 메이크업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메이크업은 의복에 비해 단시간 내에 변화와 변형이 가능하여 이미지 형성에 이어 매우 중요한 세부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¹²⁾

태양의 서커스는 기술과 기능 중심의 곡예에서 벗어나 표현력과 예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곡예에 무용을 도입하게 된다. 연극적인 요소가 처음으로 가미된 작품 『르 시르크 레앵방레(Le Cirque Reinvente, 1987)』에서부터 무용이 삽입된 곡예가는 동작과

드라마가 연결되어진 마임으로 곡예사의 표현영역을 확장시켜주며 캐릭터의 성격과 개성을 잘 전달되어 관객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예술성이 높은 마임을 통한 연기에는 본연의 개성을 나타내는 캐릭터 분장이 관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였다. 공연예술에서 무대장치, 의상, 조명, 음악 등은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수용하기 위한 표현 수단으로서 함께 발전해왔다. 무대는 극적 환경을 규정하는 공간을 의상은 극적 환경속에 존재한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방법으로, 조명은 공간과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표현하는 수단¹³⁾으로, 공연분장은 캐릭터를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는 미적 가치를 극대화한다. 특히나, 나탈리는 태양의 서커스 15작품인 『드랄리온』, 『라누바(La nouba)』, 『러브(Love)』, 『미스테어』, 『바레카이』, 『비바엘비스(Viva Elvis)』, 『살탐방코』, 『알레그리아』, 『오』, 『쥬메니티(Zumanity)』, 『자이아(Zaia)』, 『카(Ká)』, 『코르테(Corteo)』, 『크리스엔젤빌리브(Criss Angel Believe)』, 『퀘담』의 메이크업디자인 작업에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8>은 『미스테어』 공연장면으로 무대장치, 조명, 의상, 아티스트(무용수), 분장 등 모든 협업으로 이루어진 예술적 공연의 완성도를 관객에게 보여준다.

태양의 서커스로 인하여 서커스는 고전적 원형이 해체되고 철저히 타 장르의 예술과 융합되어 재구축되었으며 대중성과 예술성의 균형을 유지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메이크

업디자인의 도입으로 인하여 상설공연과 순회공연, 아레나 등 태양의 서커스는 시각적 표현으로 캐릭터의 특징을 다양하게 그리고 연기의 완성도를 높여 공연 예술적 감각을 돋보이게 하였다.

태양의 서커스는 방송, 영화, 음악 그리고 자체 상품 개발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태양의 서커스’는 서커스라기보다는 뮤지컬이거나 연극 혹은 발레 공연처럼 보이지만 그 구성 요소에는 서커스만이 제공할 수 있는 화려한 곡예가 들어가 있다. 따라서 관객들은 배우들의 공연에서 단순한 묘기나 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온갖 장면들을 아름다운 음악, 정교한 무대장치와 함께 맘껏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즉, 태양의 서커스의 쇼와 기존의 뮤지컬이나 연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기존의 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주제가 다루어진다는데 있다. 가령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태양의 서커스의 기존 11개 작품에서 모티브를 따서 제작한 솔스트롬(solstrom)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배경이 사막, 우주, 과거 등으로 매우 자유롭고, 등장인물도 외계생명체나 동물들, 흡혈귀 등으로 다채로웠는데, 이는 서커스라는 형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기존의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부분까지 재현할 수 있었다. 기존의 서커스에 표현 전달에서의 연극적인 구성과 공연장의 미디어의 협업(協業), 그리고 디자인 및 기술적 혁신이 바로 태양의 서커스의 가치를 공연예술의 총체극(total theatre)으로 완성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창작요소들의 예술적 혁신을 통해 태양의 서커스는 현대의 공연이 제시할 수 있는 대중적 흥미요소 뿐만 아니라, 예술적 완성도까지 갖추어 서커스에 대한 가치혁신을 통한 예술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이루어낸 블루오션(blue ocean)이다. 『알레그리아』는 199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디지털 할리웃상, 1994년, 1996년, 1997년 파리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은메달, 2003년 뉴욕에서 세계금메달을 수상하였

다. 『퀘담』은 1998년에 뉴욕에서 드라마 데스크상,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금메달, 2000년 제 42회 뉴욕 페스티벌에서 세계 은메달, 2001년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마틴 및 아마추어 작가, 편집자 협회상을 수상하였다. 『드랄리온』은 2001년 에미상, 2003년 제27회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은메달을 수상하였다. 『바레카이』는 2005년 뉴욕에서 텔리상을 수상하였다. 『미스테어』는 199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디지털 할리웃상을 수상하였다. 『살탐방코』은 1990년 제13회 파리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금메달, 1992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드라마 로그 디어터상, 제15회 파리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은메달, 1993년 뉴욕에서 제38회 빌리지 보이즈 오비상, 1995년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회 디지털 할리웃상, 텔레비전 스페셜로 뉴욕 페스티벌 금메달, 몬테카를로 국제 서커스 페스티벌에서 은메달, 2005년 뉴욕에서 종합예술상을 수상하였다.

상설공연 『오』 작품은 ‘물’을 공연환경으로 모티브로 설정해두어서 공연의 주 구성요소가 되는 연기와 곡예가 특수환경인 물에서 행해진다는 것을 정체로 해야만 했고, 특히 무대장치와 의상, 분장 등의 기술 관련 스태프들은 공기가 아닌 물과의 접촉을 위한 새로운 기술과 소재를 연구해야 했다.¹⁴⁾ 그리하여 『오』 작품은 1999년에 버뱅크에서 테아상(Thea), 2001년 및 2004년에 최고 연출상, 포트로더데일(Fort Lauderdale)에서 금메달과 2006년에 라스베이가스(Las Vegas) 최고 연출상 및 최고 안무상을 수상하였다.

태양의 서커스는 무용의 종류에서도 발레에서부터 전통무용, 민속춤, 힙합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구성방식이 다양하다. 기존의 서커스 무대분장의 고전(古典)을 벗어 솔로나 듀엣, 군무 등의 캐릭터가 같은 분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개성과 표현력을 살려주는 메이크업 디자인을 하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 단원들은 분장프로그램을 통해 스

스로가 자신의 캐릭터를 분장하도록 터득해야한다.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아티스트들의 신체예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심미적 표현을 관람할 수 있는 총체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태양의 서커스는 문화의 다양성과 함께 크로스 오버와 융합의 시대에 맞게 서커스에 무용과 체조, 서사극을 섞어 종합예술로 발전시킨 것이다. 태양의 서커스는 고전적 서커스에서 간과되어왔던, 종합예술을 총체적인 접근으로 시도하고 발전시켜 공연예술로서의 자리잡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 작품은 8개의 순회공연과 10개의 상설공연, 2개의 아레나 공연과 1개의 계절공연으로 공연되고 있다. 영상물로는 2개의 영화, 2개의 TV 시리즈와 8개의 다

큐멘터리가 있다.

태양의 서커스 역사를 작품분류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5).

3. 서커스의 분장 개념 및 특성

서커스의 분장(扮裝: make-up)은 무대(stage)와 관객사이의 또 다른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제는 분장인들도 음악가나 화가, 무용가, 작가들처럼 나타내고자하는 생각을 인간의 인체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¹⁶⁾ 이처럼 표현의 자유와 표현하고자하는 욕망은 한 작품속의 캐릭터를 확립하는데 중

<표 1> 태양의 서커스 작품 형태 분류

분류	위치		작품명	초연연도
상설공연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호텔	카	2005.2
		빌라지오 호텔	오	1998.8
		뉴욕 뉴욕 호텔	쥬메니티	2003.9
		트레저 아일랜드 호텔	미스테어	1993.12
		미라지 호텔	러브	2006.6
		럭서호텔	크리스앤젤빌리브	2008.8
	플로리다	월트 디즈니랜드	라누바	1998.12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	제드	2008.10
마키오	베니치아 리조트	자이아	2008.8	
순회공연	초연장소	몬트리올	알레그리아	1994.4
			퀘담	1996.4
			드랄리온	1999.4
			바레카이	2002.4
			코르테오	2005.4
			쿠자	2007.4
아레나공연			데랄리움	2006.6
미디어 영상물	영화		알레그리아	2002
			저니 오브 맨	1998
	TV 시리즈		파이어 워드인	2002
			솔스트롭	2003
	다큐멘터리		바로크 오딧세이	1994
			카 익스트림	2005
			러브시크	2006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세계를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표현하던 본능을 넘어서 하나의 캐릭터를 완성하기에 필요한 디자인적 아트부문으로 창의력과 함께 예술적인 아이템으로 발전되고 있다.

“분장은 배우의 가장 필수적인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배우의 풍모를 감추거나 왜곡시켜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려는 수단으로 그 목적은 배우의 모습을 정확하게 배역에 맞게 인물화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필요한 성격적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배역의 성격 창조에 목적이 있다.”¹⁷⁾ 서커스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분장 인물로서는 뺨에로를 둘 수 있다. 뺨에로의 역할은 불운을 피하기 위해 축제 제식을 주관하던 사제로서의 역할과 신에 바쳐진 희생제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사제로 출현하여 고대 원시사회에서는 난쟁이라는 크라운의 기이한 외형과 우스꽝스러운 행위로 제의를 담당했고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도구인 의상과 가면으로써 탈일상의 세계, 즉 신성한 세계와 접하게 되고 이 순간 가장한 크라운을 신격화되었다.¹⁸⁾ 18세기 이후, 뺨에로는 프랑스의 무언극의 등장으로 무대에서 관중들을 웃기는 익살꾼으로 불리워지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어릿광대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¹⁹⁾ 뺨에로는 관중들의 지루한 시간을 우스꽝스럽고 재치있는 행동으로 달래주는 위해 익살을 부리고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역할인데 현대에 들어 CF나 이벤트에서도 주위를 즐겁게 해주며 이목을 끌어주는 인물로 되어있다.

연극적 요소에서 광대의 초기분장에는 흰색 밀가루를 얼굴에 칠하였으나 메이크업 제품이 개발됨에 따라 워터 베이스(water based)메이크업과 오일 베이스(oil based)메이크업을 이용하여 화이트 페이스를 만들게 되었다. 워터 베이스 메이크업은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면서 컬러들이 강하고 오래 지속되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오일 베이스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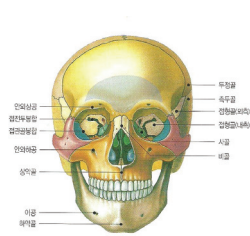
크업은 전통적인 ‘그리스 페인트(grease paint)’로 워터 베이스 메이크업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강한 컬러들로 특징지어지며 쉽게 더럽혀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²⁰⁾

크라운이라고 불리우는 명칭은 뺨에로의 초기를 지난 각가지 역할이 있는 광대인물로 발전하였다. 분장에서도 베이스색깔과 행동방식, 역할에 따라서 화이트페이스 크라운, 코메디 크라운(comedy clown), 어거스트 크라운, 트랩프 크라운으로 구분된다. 화이트페이스 크라운은 가장 뺨에로 분장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붉은색과 검정색을 사용하여 포인트 처리를 해주는 간단한 표현을 말한다. 코는 플라스틱, 스티로폼, 탁구공, 라텍스 스티로폼을 이용한 붉은색 둥근 모양으로 동일하다. 광대의 입은 과장되게 크거나 아주 작거나 하는 극적 표현으로 붉은 색으로 기본적으로 색칠한다. 헤어스타일은 컬이 강조된 컬러풀한 가발을 씌우든지 하여 본인의 머리카락은 노출시키지 않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크게 서커스 분장의 특징은 재미와 위트를 주는 유희성(遊藝性), 일상과 다른 과장을 보여주는 과장성(過狀性), 여러 가지가 섞여 모호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혼합성(混合性)으로 나누어진다.

4. 태양의 서커스 공연 분장의 유형 및 표현

태양의 서커스의 공연들에서는 드라마적 스토리텔링을 다루고 있어 공연을 관통하는 주제가 더욱 중요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의 드라마는 유형을 살펴보면, 세상의 어두운 면을 통과하는 개인 존재에 관한 드라마와 궁극적 목적으로의 여정에 관한 드라마, 그리고 조화를 통한 희망과 발전의 드라마²¹⁾로 그 드라마의 캐릭터 인물은 이러한 드라마 유형에 따라 연출되어졌다. 태양의 서커스가 서커스아트이면서 공연자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 극중 인물의 부각을 전



<그림 9> 골격학 분장
(출처: 『분장기술』, 2007, p.11)



<그림 10> 음영(陰影) 유형
(출처: 『메이크업디자인 Basic』, 2009, p.214)



<그림 11> 『드라리온』, 2003년
(출처: www.cirquedusoleil.com)



<그림 12> 『살림방코』, 2005년
(출처: www.cirquedusoleil.com)

달하는 도구로 얼굴 분장 즉 메이크업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얼굴 골격의 이해와 함께 무대의 거리감을 고려한 메이크업의 골격, 음영, 고전, 고풍, 뷰티 5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무대에서의 극적효과를 위해 인간의 골격 유형(frame type)을 조명하에서 형성되어진 형태를 분장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분장의 기초인 골격학적 접근 분장으로서 인체 골격을 따라 분장으로 활용하는 유형을 말한다. 또한 골격이 조명에 의해 그림자나 음영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하여 얼굴에 색감을 주는 음영 유형(shade type)이 여기에 속한다. <그림 9>22는 관객과의 거리상 크고 과장되어 보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고 미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얼굴의 골격을 이용하여 분장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그림 10>23은 공연자의 얼굴골격을 그대로 연장하거나 역효과를 이용하여 시각적인 가시도를 높이는 분장으로서 극적 효과 나타난다. 용의 불을 상징화하는 색상인 붉은색과 노란색을 이마와 콧대의 T-존(zone) 부위로 하이라이트 역할을 주었고 이마 양(兩)구각에는 붉은색과 함께 검정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역할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림 11>은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주어 관객에게 환상적인 인물표현도 가능하며

신비감을 줄 수 있는 효과를 높인다. 골격유형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선(line)처리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물묘사에서 색상대비나 의상매치에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라데이션(gradation) 처리를 통해 분장의 완성도를 높이고 캐릭터의 연출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준다.

2) 카니발리즘(carnivalism)

카니발은 각종 축제, 제식, 의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술의 범주에 속하면서도 예술이 규범으로 삼고 있는 공식적인 형식이나 법칙을 깨뜨린다. 24) 카니발리즘의 전형은 진지함, 합리성, 단일 의미 등을 거부하는 ‘뒤집는 삶(life turned inside out)’의 이념이다. 이러한 축제적 의미는 집단적 환희이며 변혁에 대한 즐거움 확신으로 기존의 억압구조를 해방하는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

현실에서 벗어나 이탈적인 카니발의 이벤트적 환상을 도입하여 분장에서도 희극적이고 재미와 유희, 극적인 효과로 분장할 때가 있다. 과거 서커스의 고전적 광대나 뺨에로에서 나타난 고전 유형(classic pierrot type)이 여기에 속한다. 서커스의 광대분장에서 유래되어 공연에서 탈정체성이나 이중적인 인물의 묘사를 요구할 때 페이스를 화이트 파운데이션으로 얼굴 전체를 인위성 있게 도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비비드톤(vivid tone)의 색상을 이용하여 입술을 크고



<그림 13> 『살림방코』, 2005년
(출처: www.cirquedusoleil.com)



<그림 14> 마스크 착용분장, 2010년
(출처: www.cirquedusoleil.com)



<그림 15> 『바레카이』, 2005년
(출처: cirquedusoleil.com Book)



<그림 16> 『살림방코』, 2005년
(출처: www.google.com)

빨강계, 눈썹은 더 크고 강조하고 희극적 요소와 유희적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13>은 음영 유형의 응용한 분장으로 일상에서 이탈한 카니발적 느낌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과장된 머리장식과 관객과의 거리를 고려한 강한 색상은 의상색상과 통일하면서 더욱 인물에 생명력을 불어주고 있다.

3) 더 페이즈망(dépaysement)

현실적 사물들을 그 본래의 용도, 기능, 의미를 이탈시켜 낯선 장소에 조합시킴으로 기이하고 낯선 상황을 연출하여 초현실적인 환상을 창조해내는 기법이다. 태양의 서커스는 순수한 인체표현으로서의 서커스를 지향하고자 의도적으로 동물의 출연을 배제하였으며,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함께 작품을 주제를 가지고 전개해 나가면서 타 예술장르와의 융합을 통하여 서커스의 표현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예술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그들은 서커스에 회화, 영화, 음악 등 가능한 많은 분야의 영향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뒤섞임은 놀라운 신선함과 생명력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²⁵⁾ 태양의 서커스의 주제가 상상속의 비현실존재이야기들로 인물이 묘사되는 드라마적 연극 요소가 캐릭터 인물의 분장을 초현실적인 묘사로 연출되어 관객들에게 신비롭고 자유롭고 무대에서 존재하는 살아있는 극존재로 착각하게 만드는 의상과 헤어스타일, 분장을 한다. 라텍스나 고흥물을 통해 입체감을 주는 고흥 유형(special effect type)을 말한다. 색상이라는 평면적인 접근보다는 대형

무대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입체감이 신체에 붙어서 3차원적인 공간을 주는 분장으로 가볍고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써야하며 색상을 입혀서 캐릭터가 마치 자신의 피부처럼 보이도록 유도해야한다. 이질감을 주지만, 탈(脫)인간적인 묘사를 유도할 때 주로 사용되며 환상적인 인물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14>는 토끼들의 다양한 동물분장을 반(半)가면이나 전체가면과 페이스페인팅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군무장면이다. 마스크(mask) 착용식의 분장은 마치 동화속의 인물들이 살아서 춤을 추는 듯한 환상을 불러일으켜주는 초현실적인 묘사이다. <그림 15>는 이마에 이중눈썹을 인공 고흥물 접착시켜 파충류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림 16>은 여자광대의 코선을 연장하는 라텍스(latex)를 이용하여 얼굴에 공간적인 활용을 통해 캐릭터를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다. 그 외에도 무대위의 화장에 속한 뷰티 유형(beauty type)이 있으나 공연무용의 가장 기본인 발레 분장이나 뷰티 메이크업이 이 유형에 속한다. 라이트 핑크계열의 파운데이션을 페이스 파운데이션으로 도포하고 눈화장은 보라나 핑크, 블루계열로 선을 잡아주는 전형적인 스테이지 뷰티메이크업 스타일을 말한다. 조명아래에서 또렷한 눈매로 보일 수 있는 뷰티메이크업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그림 17>은 『바레카이』 공연에서 코믹연기를 보여주는 푼수이자 미술사 조수로서 똥똥하고 색시함을 보여주면서 공연에서 지루하지 않게 유도



<그림 17> 바레카이, 2005년 <그림 18> 『바레카이』, 2005년
(출처: cirquedusoleil.com Book) (출처: cirquedusoleil.com Book)



하는 역할을 한다. 금발에 어울리는 블루계열 아이세도우를 써서 조명에서 잘 보인다. <그림 18>은 『바레카이』 마지막 결혼식 장면으로 남녀 모두 스테이지 뷰티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남자는 눈썹을 왁스처리해서 더욱 아이세도우의 폭을 넓게 해주어서 색상이 눈에 띄게 하였고 여자는 아이홀기법에 블루계열로 서양인의 눈 컬러색과 조화를 이룬 뷰티메이크업을 하고 있다.

III.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캐릭터분장의 특성

태양의 서커스는 각 나라의 전통 무용에서부터 발레, 현대무용, 디스코 댄스, 브레이크 댄스, 팝 댄스 등 다양한 장르의 무용을 작품의 특성과 분위기에 적절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구성방식에 있어서도 독무와 듀엣, 트리오, 군무 등 무용공연에서 쓰이는 형태를 반영하고 있다. 기존의 서커스가 갖지 못한 부재적 요소들을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예술적 접근을 꾀하면서 새로운 미적 아름다움의 질서를 창조하고 있다.²⁶⁾ 태양의 서커스는 초현실적 초자연적 모티브로 한 주제로 추상적 현실주의 이미지와 오브제를 캐릭터에 전환시켜 시각적 충격과 신비로움을 형태의 과장과 변형, 다양한 소재의 통합, 환상적인 자연미의 표현을 통하여 초현실적 캐릭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공상, 환상의 세계를 중요시하며 이를 이미지로 형식의 정형화에서 벗어나 표현의 다양성을 초래하였다.

1. 골계(滑稽: theatrical comic)

골계(滑稽)는 기대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이외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느껴지는 미적 쾌감을 말한다.²⁷⁾ 태양의 서커스 캐릭터들의 얼굴색은 고전 서커스의 광대의 화이트 페이스를 기본으로 얼굴색에서 연극적 인물 묘사로 일관된 통일성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여러 색상을 화려하게 사용하여 캐릭터를 표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조명의 색상을 고려한 무대의 스케일을 염두해서 메이크업 디자인 한 것이다. 무대조명의 노랑계열(5Y), 빨강계열(5R), 파랑 계열(5B)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조명아래에서도 다른 컬러를 잘 반사시키고 색감을 드러내기에 얼굴 본바탕은 백색이 적합하다. 얼굴 본바탕 색상을 제외하고는 비비드 컬러(vivid color)를 주조색으로 눈(eye), 광대뼈(cheek), 입술(lip)에 적용하고 있다. 광대한 무대스케일에서 가장 조명아래 인물이 뚜렷이 보이기에 효과적인 컬러 선정을 한 것이다. 의상색상도 비비드톤이 가장 많다<표 2>. 이는 시각적인 화려함과 움직임속에서 더욱 현란하고 놀라운 화제인물로 보이고자 하는 디자인 의도가 보인다. 의상은 보색대비치리로 드라마틱하고 괴이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무대와 관객간의 먼 거리로 인해 가시도를 높이기 조명과 의상모두가 시각적 효과를 고려하여 미적 쾌감을 높이는 연출을 하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에서의 캐릭터는 희극적인 요소로 색상을 가지고 표출하여 더욱 연극적인 요소를 보여주었다. 대사가 없는 음악과 조명아래에서 이루어지는 포퍼먼스 아르바틱 무용은 연극적인 연출이 강하게 어필되



<그림 19> 석고모형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 264)



<그림 20> 개인별 시연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35)



<그림 21> 태양의 서커스 데모 일러스트,
2009년 (출처: 연구본인작품)



<그림 22> 『살탐방코』, 2005년
(출처: www.google.com)



<그림 23> 나탈리 가그네, 2005년
(출처: www.google.com)



<그림 24> 캐릭터분장전후, 2005년
(출처: www.goog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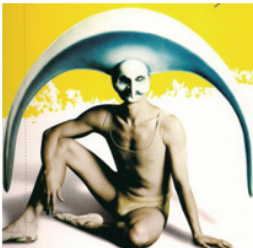
고 있다. 동양적인 캐릭터로 신비롭고 에스닉(ethnic)한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한다. 동화나 상상에 등장하는 인물묘사로 신선한 캐릭터를 창출하여 이야기 전개를 한다. 주로 난색계로 노랑(yellow)계열이나 빨강(red)계열로 온화하고 포근한 인상을 준다. 연기자들의 몸과 얼굴에서 읽을 수 있는 스토리전개는 태양의 서커스가 추구하는 언어보다 더 강한 호소력을 발휘하여 관객들을 몰입하도록 해준다.

태양의 서커스 디자인팀은 각 아티스트의 얼굴을 석고틀로 모델링을 해두고 거기에 적합한 헤어, 메이크업을 직접 제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림 19>. <그림 20>은 태양의 서커스는 캐릭터

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아티스트 스스로가 분장을 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캐릭터를 소화해내는 예술성을 본인의 창의적인 역량까지 갖추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신의 머리틀에 맞게 제작된 가발을 쓰고 크림 화온테이션으로 컬러를 마무리하고 있다. <그림 21>은 태양의 서커스의 전형적인 인물묘사로 화이트 얼굴에 빨강, 파랑, 오렌지 등 연극적인 얼굴 표현으로 다소 과장되고 곡선적인 선처리로 인물을 묘사하였다. 큰 눈주변에 비해 입술은 극적으로 작고 하트모양으로 대비를 두고 있다. <그림 22>는 『살탐방코』 작품에서 나오는 다양한 크라운의 캐릭터 분장으로 코믹하고 유희적인 희극 분장을 하고 있다. <그림 23>은

<표 2> 태양의 서커스에서 나타난 캐릭터 색상표

얼굴 바탕색	눈화장	볼터치	립스틱색상	눈썹 색상
백색	파랑(5B) 초록(5G) 빨강(5R)	빨강(5R)	검정 주황(5YR) 분홍(10RP) 파랑(5B) 빨강(5R)	검정 라이트 브라운(92YR) 누드(눈썹 생략)
	비비드톤			



<그림 25> 『오』, 2004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208)



<그림 26> 『오』, 2004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 210)



<그림 27> 『알레그리아』, 2003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171)

나탈리 가그네(Nathalie Gagné)가 분장하는 모습으로 각 캐릭터의 분장시연을 통해 아티스트가 직접 습득하도록 교육을 시킨다. <그림 24>는 『바레카이』 아티스트 마리아 코레트(Mariya Corlett)의 캐릭터 분장하기전과 분장후의 모습이다. 얼굴의 골격을 활용한 메이크업 표현기법과 비비드톤의 선명한 컬러선택으로 과장되고 극적인 효과를 연출하는 분장이다.

2. 초현실성(超現實: surrealism)

태양의 서커스는 초현실적 세계의 확장으로 무의식의 영역에서 움직이는 정신활동을 방향으로 제시하며 매우 실험적이고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공연이다. 이것은 반자연, 비구상의 미학을 가지고 초자연적 영혼을 강조했던 시인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아름다움은 항상 괴상한 것이다”의 미학과도 상통한다. 초현실성은 이상과 같이 장소성, 일반적 통념, 합리적 사고를 초월한 불합리한 조합을 통하여 일상성을 상실한 비정상, 이상, 놀라움, 당황 등을 환기하는 경이롭고 충격적인 상황에 경의를 표하였던 것이다.²⁸⁾ 형태의 과장과 변형, 다양한 소재의 통합표현, 환상적 자연미의 표현을 통하여 초현실주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초현실적 표현 중에서도 오토마티즘(automatism)이라는 표현방법으로 무의식의

세계를 표출하여 정신적으로 자유로움을 추구하였다.²⁹⁾ 또한 오토마티즘은 오브제의 사용을 통해 사물의 은유와 변형, 신체부위의 응용, 위치와 변형과 착시, 자연물의 응용 등으로 초현실적 이미지로 전위적인 표현까지 선보였다. 태양의 서커스 예술은 역사적으로 단순한 익살꾼으로부터, 심한 장난으로 심술을 부리거나 곡예를 하는 재주꾼 또는 지적이고 우수한 찬 역설적인 희극 광대 등 많은 형태적 변화가 이루어져왔으나 본질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의상과 행동, 가면 또는 흰색 분장을 하고 표출하는 유희는 전통적인 형태를 보존함으로써 가장(假裝)성을 통한 새로운 존재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는 시각적 충격과 신비감으로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공연예술적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

메이크업 디자이너 나탈리 가그네는 시대적 특성이나 인물의 캐릭터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에서 속눈썹, 레이스, 보석, 크리스탈 심지어는 라텍스를 이용한 특수분장효과를 가능케하는 고품질(prosthetics)과 같은 다른 재료를 추가하였다. 인간의 얼굴에서만 표현하던 라이닝 컬러(lining color: 유(油)성분의 컬러화운데이션)에서 입체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재질로서 인간의 피부와 흡사한 처리가 되어 관객들에게 또 다른 캐릭터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조명아래에서의 무지개빛 쉬머(shimmer) 처리는 몸으로 표현하는 아크로바틱을 더욱 에로



<그림 28> 『알레그리아』, 2003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169)



<그림 29> 『드랄리온』, 2003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266)



<그림 30> 『드랄리온』, 2003년
(출처: www.google.com)

탁한 무드로 인도하게 된다. 태양의 서커스는 고도의 인체움직임이 있어 땀에도 지워지지 않는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나 『오』 작품의 경우, 물속에서 싱크로 나이징을 하는 아티스트의 분장은 물 컬러를 고려해서 얼굴에 가면(mask)을 쓰거나, 라이닝컬러 처리로 워터풀(water full) 더욱 과장되게 연출이 가능하게 하며 가벼운 라텍스 재질로 연기자의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는 특수분장의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 재질적인 효과를 가장으로 처리하는 분장을 말한다. 그외에도 컬러색상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를 높이며 환상적이고 이탈적이면서 꿈을 꾸는 듯 초현실적인 공연 스토리의 캐릭터 표현은 신비스럽고 때론 우주적이다.

<그림 25>는 가면과 함께 모자를 연결해서 하여 모호하면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전달주고 있다. 달의 정령같은 음산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가면의 이중성으로 얼굴의 표정을 알 수 없고 신비스런 느낌을 준다. <그림 26>은 수중 발레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들의 장면으로 반(半)가면을 쓰고 물의 정령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가면안에 있는 눈에 검정색으로 분장하여 눈에 깊이감을 더해 주면서 호러스러운 느낌마저 들게 하였다. <그림 27>은 『알레그리아』에 등장하는 늙고 아주 욕심많은 귀족을 은유하여 분장한 새(birds)분장이다. 화려한 의상과 함께 꾸글꾸글한 주름의 표현은 특수

분장(sepecial make-up)으로 가능한 작업으로 연기자의 진짜 피부처럼 리얼리티하여 캐릭터의 역중 효과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3. 다문화성(多文化: multiculturalism)

현대인들은 대량물질 문명사회와 지구촌의 세계화 속에서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대적 흐름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다양한 예술양식과 문화가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적 트렌드를 하나의 양식으로 논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그 시대의 문화와 미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중의 하나인 메이크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들이 병존, 결합하는 퓨전현상이 문화적 코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일반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³⁰⁾ 캐릭터마다 개성과 표현력을 더하기 위해 얼굴의 분장은 크고 컬러풀하게 진행되고 있다. 눈매의 확장으로 더 큰 아이홀라인(eye-hole line)을 그려서 무대에서의 작은 얼굴을 더욱 입체감있게 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눈썹은 아치형이 가장 많았고 눈썹을 생략하고 그 위에 아이테크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어리거나 군무일 경우 눈썹을 연한 갈색(light brown)으로 처리하여 귀



<그림 31> 『바레카이』, 2005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302)



<그림 32> 『퀘담』, 2001년
(출처: Cirque Du Soleil, 2004, p.194)



<그림 33> 『바레카이』 캐릭터, 2011년
(출처: www.cirquedusoleil.com)

엽고 페미닌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남자아티스트에게도 입술을 붉은 색으로 가장되게 크게 아니면 아주 작게 처리하여 연극적 요소를 살려주고 있다. 입술선은 곡선이 가장 많고 유선형과 하트형이 주목성을 더해준다. 광대뼈를 감싸고 치크(cheek) 처리부문에서 유선형을 그려서 코끝을 향해 부드럽게 곡선 처리함이 더욱 얼굴의 입체감을 살려준다. 얼굴의 윤곽선을 강조하며 극대화하기 위해 얼굴에서 생기는 명암처리를 색상을 이용하여 형태를 이루는 선처리로 마무리 하였다. 색상을 이루고 있는 면적에서 흰색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더욱 극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태양의 서커스분장은 서커스의 고전적인 피에로의 모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전을 현대적인 의상과 함께 더욱 미니멀(minimal)하게 연출하였다. 광대의 모습이 웃음을 주는 역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전달하며 해석해주는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크라운의 재해석으로 퓨전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더욱 세련되고 인물의 개성적인 특징을 살려 분장하는데 색상은 제한적이면서 자제한 모던함을 보여준다.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광대는 각자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살려 자신의 내면의 연기가 살아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얼굴색상은 주로 흰색으로 처리하였고 3가지 이상의 색상을 동시에 쓰지 않으면서 주목성이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고전적인 크라운의 재해석으로

반전을 꾀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요소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동·서양의 혼합적 분장도 눈에 띄게 나타난다. 태양의 서커스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 그리고 소재거리로 인해 이국적인 배경과 인물의 캐릭터가 있으며 분장도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경극(京劇)분장과 일본의 가부키(歌舞伎 かぶき)분장은 『알레그레아』, 『카』등 이색적인 인물모사를 더욱 부각시켜주는 분장을 응용하고 있다. 패션에서의 에스닉 이미지는 동양의 문화에서 출발해, 현대에는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이나 그에 따른 장식, 분장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부키의 흰색분장과 경극의 과장된 아이라인 등 각 분장의 특성을 섞어 표현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³¹⁾ 이는 태양의 서커스의 본고장이 다국민이 사는 캐나다 퀘벡이라는 특이성과도 관련이 깊다.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으며 공연을 받아들이는 관객이 아시아권과 유럽권에 따라 다르게 호응하는 반응을 간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8>은 광대의 모호하면서 혼합된 성격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혼용되어 더욱 의미부여가 크고 현대적으로 이미지 전달되는 퓨전적 요소가 가미된 인물 분장이다. <그림 29>는 여러 인종과 민족의 다국적인 콘텐츠를 공연하고 있는 태양의 서커스는 서양적인 소재거리보다는 신화적 스토리전개를 가진 동양적이면서 여러 시각에서의 문화와 스토리를 담고 있어 인물분장에서도 독특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극적인 인물묘사를 위해 흰 얼굴위에 검정, 빨강을 선 처리하여서 분명한 인물묘사를 보여주고 이국적인 풍을 자아내면서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시켰다. <그림 30>은 『드랄리온』의 대지 땅, 가야(Gaya)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아프리카풍의 캐릭터를 선보이고 있다. 오색찬란한 색상의 수술을 머리장식, 목걸이 장식, 허리장식, 무릎 장식까지 하여 토속적인 인물묘사와 함께 얼굴에도 원모양의 하양, 빨강색의 페인팅 분장을 하고 있어 주술적이면서 민속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4. 괴이성(怪異: grotesque)

그로테스크란 기괴하고 메스꺼우면서 희극적이고 즐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것이며 무섭게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양식 사이의 충돌이 빚어내는 감흥이라 했다. 그것은 대상과 지각 중체의 반응 모두가 관계되는 바, 쾌와 불쾌, 웃음과 공포와 같은 양립 불가능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대립적으로 혼재해있는 이미지나 양식, 또는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특정 반응, 즉 호기심과 혐오감의 양극을 왕래하는 주체의 엇갈리는 감흥을 가리킨다. 그로테스크한 특성이 분장에서 연관되어 나타나는 이미지는 부조화나 비인간적, 악마적, 비정상적인 이미지들로 장식적인 미의 개념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인 공상의 세계나 혐오감이 발하는 표현이나 이중적인 분배표현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³²⁾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비인간적 존재들의 캐릭터에서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인물의 캐릭터들이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의상색상과 동일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분장은 보색대비 색상으로 다이나믹하면서 카리스마가 넘치는 에너지 발산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과장된 크기나 구조물형태를 주어 무대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도 하여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소름끼치는 벌레나 형체를 변형하

여 정형화되지 않은 인물 묘사를 하기도 하였다. 그로테스크한 존재들의 캐릭터 표현이 괴이하고 공포스러운 인물로 표현되기도 하고 악마적인 분장으로 어두운 존재의 신비스럽고 초현실적인 캐릭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러스러운 인물묘사가 여기에 속한다. 강한 자극적인 효과를 위해 마스크나 보형물로 입체적이면서 성격부여가 더욱 잘 전달된다. 주로 블랙(black) 색상과 레드(red) 색상으로 음산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차분한 워밍 컬러(warm color)보다는 쿨 컬러(cool color) 사용으로 초자연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있다. 추하게 묘사되어 추미(醜美: ugliness beauty)적 캐릭터으로 의외적인 분장을 하고 있다.

<그림 31>은 그로테스크한 캐릭터를 휘몰아치는 가면얼굴로 표현하였다. 공포스럽고 일그러진 그러면서 허무한 인간을 표현하고 있다. 기존의 크라운 캐릭터분장은 무섭고 괴력스러운 인물묘사는 없었으나, <그림 32>에서의 크라운역할이면서 악마의 공포스러움과 폭력적인 캐릭터로서 붉은색과 검정색만으로 골격 유형을 활용하여 어둡고 음산한 인물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33>은 파충류의 징그러운 표피표현을 괴이한 인물표현으로 연출하였다. 두개골의 연장선을 잘 응용한 작품으로 동물의 의인화가 잘 표현되었고 평면을 벗어나 스페셜 이펙트(special effect) 조형물을 이용하여 라텍스 지느러미느낌의 입체감은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 섬세한 분장이다.

IV. 결론

태양의 서커스는 곡예만을 보여주던 기존의 서커스에서 탈바꿈한 최첨단 기술과 함께 작품속에 드라마극을 도입하여 공연을 전개하면서 연극, 뮤지컬, 음악, 디자인, 무용, 분장 등과 같은 타(他)예술장르와의 융합을 통한 예술성과 서커스의 새로

운 표현영역과 공연양식을 창조해내었다.

태양의 서커스는 아티스트의 감성을 몸의 움직임 즉 곡예표출로서 연출하고 캐릭터의 의상디자인과 분장을 통해 개성을 뚜렷이 나타내고, 캐릭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시각적인 미를 창출해내어 관객들을 심미적인 경험으로 이끌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가 사양산업이었던 서커스를 블루오션으로 성공한 밑바탕에는 예술적 가치 혁신과 인간 감정과 이성적 감각의 자유로운 표현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표현이 무언극으로 진행되는 태양의 서커는 마임형식으로 몸과 의상, 조명, 음악, 연기자의 표정연기로 보여주는 스토리 전개 공연드라마를 선보이고 있다. 이 드라마적 극적 상황과 인물의 묘사에는 캐릭터분장이 의상과 더불어 역할 이해를 돕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토탈적 예술로의 시도를 하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 캐릭터분장의 외적인 변화와 시도로 우스꽝스럽고 조잡하던 서커스에 예술적 표현과 혁신으로 관객에게 인간의 내적인 감흥을 줄 수 있는 서커스아트로 인도하며 공연예술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태양의 서커스의 캐릭터 분장의 표현방법은 크게 일루미네이션, 카니발리즘, 더 페이스망의 3가지로 정리되었다.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인물의 뚜렷한 조형성을 가미하고자 골격유형과 음영유형으로 무대거리상의 문제를 해결한 일루미네이션 표현을 적극 활용한 공연분장이 나타났다. 또한 고행유형으로 입체감과 현실에서 벗어나 이벤트적 희극요소가 가미된 카니발리즘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리고 낮은 상황에서 초현실적인 상황을 이끌어주는 더 페이스망 표현이 나타났다. 이러한 표현방법이 인물의 가시도를 높이고 각 작품마다의 또 다른 인물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되었고 태양의 서커스의 캐릭터 분장의 미적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캐릭터분장의 미적 특성은 크게 골계, 초현실성, 다문화성, 괴이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골계는 기대된 것과는 모순된 현실에 부딪혔을 때 그 괴이성 때문에 느껴지는 놀라움, 환멸감 등의 불쾌감이 유희적 태도에 의해서 극복되면서 느껴지는 미적 쾌감을 말한다. 태양의 서커스는 희극적인 연극 캐릭터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초현실성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얼굴 묘사로 가증스러움을 더해 이중적인 인간의 내면을 표현했다. 초현실성 중에서도 오토마티즘은 오브제의 사용을 통해 사물의 은유와 변형, 신체부위의 응용, 위치와 변경과 착시, 자연물의 응용 등으로 초현실적 이미지로 전위적인 표현이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성은 다국적인 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의 세계를 현대적 혼용을 통해 더욱 세심하고 이국적인 소재들의 인물을 선보였다. 시대의 문화와 미의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공연분장에서도 다양한 이미지들이 병존, 결합하는 퓨전현상이 문화적 코드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추구하는 일반 대중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관객들에게 또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신비감과 동경을 접하게 된다.

넷째, 괴이성은 기괴하고 메스꺼우면서 무섭게 소름끼치는 내용과 희극적인 표현양식 사이의 충돌이 빚어내는 감흥을 말한다. 웃음과 공포와 같은 양립 불가능한 이질적인 요소들이 대립적으로 혼재해있는 이미지, 양식, 또는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특정 반응, 즉 호기심과 혐오감의 양극을 왕래하는 주제의 엇갈리는 비인간적 존재들의 캐릭터에서 동물적이고 원시적인 인물의 캐릭터들이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과장된 크기나 구조물형태를 주어

무대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도 하여 때로는 코믹하게 때로는 소름끼치는 벌레나 형체를 변형하여 정형화되지 않은 인물 묘사하였다.

본 연구는 종식되어가던 서커스를 최첨단 기술과 여러 예술 장르의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공연으로 재창조해내며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연으로 가치혁신을 일으킨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분장의 예술적 미를 밝힘으로써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무대분장의 캐릭터 특성을 통해 무대분장에 새로운 형태의 예술적 가치를 폭넓게 인식시키고 제시하고자 한다. 무대분장의 예술적 영역 확장으로 공연 분장이 타(他)장르의 공연예술 무대에서도 공연의 미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김말복 (2003). 무용예술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4.
- 2) Ame, W. (2002). Cirque du Soleil reimagines the circus: The evolution of anaesthetic,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Oregon, pp.1-155.
- 3) 심영임 (2010). 태양의 서커스에 나타난 무용의 예술적 의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7.
- 4) 유선미 (2005). 퍼포먼스 공연 중 서커스 음악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75.
- 5) 전성찬 (2010). 태양의 서커스의 블루오션전략,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83.
- 6) 최민지 (2007). 태양서커스공연에 나타난 창작요소의 혁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52.
- 7) 장미숙 (2007). 클라운 분장 코디네이션의 카리발리즘적 특성 연구, 한국패션뷰티학회지, 5(1), p.100.
- 8) 장미숙. 위의 책, p.102.
- 9) 류승희 (2008). 안녕하세요 세잔씨, 파주: 아트북스, p.347.
- 10) Tony, B. (2004). Cirque Du Soleil: 20 Years Under the Sun; An Authorized History, Canada: Harry N. Abrams, pp.1-352.
- 11) 장혜술 (2012). 서커스의상의 다면성 연구, 연극교육연구, 20(-), p.145.
- 12) 김지량, 최현숙 (2012).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스타일 메이크업 특성,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2(1), pp.39-53.
- 13) 최순화 (2004). 무대의상으로의 초대, 서울: 연극과인간, p.92.
- 14) 최민지 (2007). 앞의 책, p.35.
- 15) 전성찬(2010). 태양의 서커스의 블루오션전략,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68-71.
- 16) 강대영 (1999).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p.246.
- 17) Mireille, B. (1988). Le Maquillage, Paris: Edition de ia Beaute, p.5.
- 18) Joseph, C. (1991). 원시신화: 신의 가면 I, 이진구 옮김 (2003). 서울: 까치 글방, pp.35-36.
- 19) 문현석 (2005). 서커스를 예술로 승화시킨 태양의 서커스, 서울: EMARS, pp.1-30.
- 20) Philip D. N. (1996). Fool of the Kingdom, Clown, Colorado Meriwether Publishing, p.55.
- 21) 최민지. 앞의 책, p.49.
- 22) 홍수경, 이운배 (2007). 분장기술, 서울: 예림, p.11.
- 23) 오인영, 이숙연, 강근영, 류지원 (2009). 메이크업디자인 Basic, 서울: 훈민사, p.214.
- 24) 최진성 (2006).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의 카니발리즘,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
- 25) John U. B. and Lyn, H. (2006). SPARK, 홍대운, 이창근 옮김 (2007).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주), p.99.
- 26) 심영임 (2010). 앞의 책, p.41.
- 27)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1, 파주: 교문사, p.215.
- 28) 류근중 (2010). 패션아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p.4.
- 29) 박옥미 (2010). 공연예술 의상에 표현된 초현실주의 이미지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6(4), p.276.
- 30) 김현진, 김혜경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3), pp.99-115.
- 31) 김선숙, 손영미 (2005). 현대 메이크업의 이미지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5(1), pp.69-84.
- 32) 김승현 (2005). 그로테스크 특성이 반영된 예술분장의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6-27.

A Study on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Make-up in Cirque du Soleil

Kim, Eun Jung · Kwak, Tai Gi⁺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characters' make-up in "Cirque du Soleil," which is a big change from the existing circus. "Cirque du Soleil" is a sort of storytelling performance in which free expressions of innovation in artistic value, human beings' emotions and rational senses are used through a pantomime by introducing a form of drama together with cutting-edge technology. The performance, which is developed in the form of pantomime, is a new form of performance mode which expands the artistry of acrobatics and the realm of circus expressions through fusion with other genres of art like theatric art, dance, costume design, lighting, music and make-up. The characters in such performing arts expose their personality and identity through performance make-up and convey their emotions to the audience. "Cirque du Soleil", uses performance make-up as a communication tool which helps audiences understand a character in a play, a dramatic situation, and description of characters, together with costume, and also enhances the artistic value in performing art. This study, throughout its research, was able to perceive that the make-up in "Cirque du Soleil" provides an element of surprise as it escapes from reality; and the sporty, theatric character make-up, which evokes disillusion, gives an unusual sense of beauty; its display of infinite imagination and avant garde image give a visual shock, and the make-up leads audiences into an aesthetic experience by creating visual art using a new mystique of an new cultural code. As for the research scope, this study, with focus on worldwide award-winning works, selected and analyzed of a total of 7 works.

Key words: aesthetic characteristics, circus art, Cirque du Soleil, characters' make-up